



도시환경협약 광주환경박람회 1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1 도시환경협약(UFA) 광주환경박람회' 행사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조경업 작가의 작품 '사이 매트릭스'를 이마니 모하메드 유엔환경계획 사무처장 등 세계기구 대표와 각 도시 정상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F1 티켓 판매 '魔의 200억' 넘었다

**상하이·말레이시아 대회보다 더 많아
최고가 메인그랜드스탠드 85% 채워**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 대회의 입장권은 얼마나 팔렸을까. 지난해 564억원의 입장권 판매 목표를 세웠던 대회 운영법인의 기대와 달리 정작 수입은 고작 139억원에 불과했고 한 차례 대회로만 677억원의 적자를 내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결국 '돈 먹는 하마'라는 불명예를 썼다. 따라서 두 번째인 올해 F1 코리아 그랑프리(10월 13~15일)의 성공 여부는 티켓 판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11일 "다양한 입장권 판매방식으로 인해 공식적인 집계 가 이뤄지지 않아 액수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말이 조직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흘간 판매되는 좌석을 모두 팔았을 때의 수익(390억)과 조직위원회의 올 판매 목표액(250억)에 다소 못 미치는 지난해에 견주면 '선방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떨어진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치러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2466억원을 투자하고 100억원의 입장권 수익을 거뒀다. F1 개막전으로 인기가 높은 호주 대회의 티켓 판매액은 230억원 가량이고, 어려 차례 대회를 치러온 상하이(160억)와 말레이시아(130억)와

100억원대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위는 특히 결승전이 열리는 16일을 기준으로 전체 좌석 12만석 중 8만석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0만원이 넘는 최고가 좌석인 메인그랜드스탠드의 경우 1만6000석의 85%가 채워졌다.

개막을 이틀 앞두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 S와 H사가 5억원 어치의 티켓을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면서 매진이 임박, 돈을 주고도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좌석당 37만~69만원인 그랜드스탠드 A구간(1659석)과 3일권 기준으로 18만원선인 그랜드스탠드 I·J(1만5000석)구간도 판매가 종료됐다. 지난해 열렸던 기업부스도 모두 팔려나갔다.

국내외 VIP 450명...세계 경제·외교 무대

F1 '패독 클럽'

14일부터 3일간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대회는 '세계 경제·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김광식 국무총리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 국내외 정·관계, 경제계 거물급 인사 등이 대거 영암을 찾은 예정이기 때문이다.

11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F1 대회기간 영암 서킷의 VIP 공간인 '패독(Paddock) 클럽'을 찾은 국내외 거물급 VIP들은 45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패독클럽은 F1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F1 경기 관전을 활용해 글로벌 경영활동을 펼치는 VIP들의 F1 경기장 내 비밀 사교공간이다.

이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패독클럽에서 F1 경주를 즐기면서 국가 간 경제 현안이나 기업간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 인사로는 김광식 국무총리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경주장을 찾는다. 또 지역 국회의원 10여명도 영암서킷을 찾아 경주를 지켜본다. 장 토드 국제자동차연맹(FIA) 회장, 비제이 말리야 포스인디아팀 대표, 토니 페르난데스 로터스 F1팀 대표 등의 영암 입성도 예정돼 있다.

F1 글로벌스폰서로 브랜드 노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LG전자는 직접 패독클럽을 임대, 국제 비즈니스계의 귀빈(VIP)들을 초청해 F1 대회를 '비즈니스의 장(場)'

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석태수 한진 대표이사, GS칼텍스 전상호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경영전략본부 본부장) 등도 경주장을 찾는다. 연예인 중에는 최수종·류시원·이세창·이덕화 등도 서킷을 찾아 경주를 즐긴다.

한편, 버니 에클레스톤 F1 매지니먼트(FOM) 회장은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산단 공장부지 임찰 뒤 대기업간 갈등 확산 GS, 금호에 원료공급 전격 중단

(GS칼텍스) (금호피앤비화학)

올·내년치 계약 파기...장기화뎀 연쇄 생산차질 우려

여수시가 최근 공개 매각한 여수산단내 적량지구(7만4000평) 공장부지를 둘러싸고 임찰에 참가한 대기업간 갈등(광주일보 10월 3일 11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S칼텍스가 금호피앤비화학에 대한 벤젠 공급을 중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금호피앤비화학은 "GS칼텍스측이 임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벤젠 공급을 못하겠다고 구두 통보한 뒤 1주일 후 특별한 사유없이 내년도 벤젠 10만t 공급 계약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로 인해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밝혔다.

금호피앤비화학은 당장 이번 달 물량도 GS칼텍스가 공급하기로 한 8000t 가운데 2000t밖에 받지 못해 여천NCC와 호남석유화학 등으로부

터 벤젠을 추가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호피앤비화학은 벤젠 수급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가동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 등 해외 거래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이 연간 필요로 하는 벤젠은 약 28만t으로, 이 가운데 10만t(당 124만 원·총 1240억원 상당)을 GS칼텍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페놀과 아세트의 중간재인 큐멘의 원료로 쓰이는 벤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폴리카보네이트 생산 차질로 인근 LG화학, 호남석유, 제일모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이번 사태가 기



▲여수산단내 적량지구 공장부지. GS칼텍스와 금호피앤비화학은 이 부지를 임찰했다. 사진은 GS칼텍스의 임찰 현장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을 GS에서 공급받는 제안 등을 통해 관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피앤비화학도 금호석유화학은 공장 증설을 위해 지난 달 29일 여수시의 적량지구 원형지 공개 입찰에 참가, 예정가보다 2배가량 높은 450억원에 낙찰받았다.

GS칼텍스 남문앞에 위치한 적량지구는 GS칼텍스가 여수시와 함께 공동개발로 용도를 변경해 놓을 정도로 공을 들인 땅이지만 입찰에서 30여 차이로 석해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GS칼텍스측은 벤젠 공급 중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29일 여수시적량·두암지구 원형지를 공개매각하면서 임찰 하루 전 변경 공고를 내는 가하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을 붙여 기업간 경쟁을 부추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6-홍-9061호

'공황장애' 한방(韓方)으로 치료!

공황장애(恐慌障礙)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어린 새가 동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무섭고 당황해 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처럼, 짐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하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가워 마비될 것 같은 감각을 느낀다. 동시에 무슨 응급상황이 신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심장이 곧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 가게 만든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공황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신체적인데 있다는 주장이 많은 신경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의 어떤 생화학적 기능장애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험을 탐색하는 대뇌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온다고 주장하고 또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보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정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방에서는 심담기허(心膽氣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심비양해(心脾兩虛), 심신불고(心腎不交), 위중불화(胃中不和)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공황발작의 증상의 특징은 첫째는 예기치 않은 중에 아무런 특별한 자극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실과 그 발작이 보통 길어야 10분 정도로 짧다는 것과 몇가지 특수한 증상이 있다는 점이다.

- 1)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짐
- 2) 땀을 흘림
- 3) 손, 발 혹은 몸이 떨림
- 4)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 5) 흉통 또는 흉부 압박감
- 6) 질식할 것 같은 느낌(목이 눌리거나 졸리는 감각)
-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 8)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 9)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10) 죽을 것 같은 두려움
11) 오한 또는 열감을 느낌
12) 어지러움과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 불안정감, 머리 멍함 또는 졸음)
13) 감각이상(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

한번에 하는 것은 상당한 임상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공황장애가 여러 다른 신체 및 정신장애와 동시에 이행(移行)되어있는 경우 공황장애의 합병증으로 공포증, 예기불안,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이미 공포증이 매우 심해진 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 외에도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제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진료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침 · 뜰 · 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

화정동 추선회관(추선회관)
◀ 승선리 ▶ ▶ 동고개 ▶
경희한의원
* 주차장 연비 * 건물 옆 뒷길 엘리베이터가